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9. 21. / (총 12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박 은 정 한 연 수	전 화	044-202-1711 044-202-1714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김 정 일 유 효 연		02-2113-7660 02-2133-7669
인천광역시 코로나19대응 추진단	단 장 담 당 자	안 광 찬 이 은 실		032-440-7801 032-440-7849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과 장 담 당 자	윤 덕 희 최 문 갑		031-8008-5420 031-8008-5422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과 장 담 당 자	류 용 래 배 문 성		044-200-4430 044-200-4438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팀 장 담 당 자	송 준 헌 김 세 은		044-202-1750 044-202-175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방역대책 추진상황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방역대책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많은 국민께서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결과 어제(9.20.)는 하루 **확진자 수가 두 자리수**로 떨어졌다며, 추석 **연휴 기간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진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방문 판매와 사업설명회**를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고위험군인 **고령층은 이들 시설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전 국민적인 거리 두기 노력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국내 환자 발생 수는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9월 6일(일)부터 9월 19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비수도권** 지역은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29.7명**이 발생하여 **이전 2주간**(8.23.~9.5.)**의 66.7명**에 비해 **37명 감소**하였다.

- 한편, **수도권**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91.3명**으로 **이전 2주간**(8.23.~9.5.)**의 208명**에 비해 **116.7명 감소**하였다.

- 이에 따라 **최근 2주간**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21명**으로 **이전 2주간**(8.23.~9.5.)**의 274.7명**에 비해 **153.7명 감소**하였다.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8월 23일 ~ 9월 5일		9월 6일 ~ 9월 19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74.7명		121명
수도권	208명		91.3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1.6명	⇨	13.5명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65건		25건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19.9% (796/4008)		26.9% (507/1883)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80% 미만		80% 미만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부 위험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8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하였다.

-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환자의 비율**은 **26.9%**에 달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나,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지역사회의 잠복감염이 상존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증가한 8월 16일부터 **5주간의 환자 발생 현황**을 비교해 보면,

- **수도권**은 일 평균 224.3명(8.16.~8.22.)에서 **253.9명**(8.23.~8.29.)**까지 증가**하였다가 162.1명(8.30.~9.5.)으로 감소한 이후 계속 줄어 **지난 한 주는 83.7명**(9.13.~9.19.)이 발생하였다.

- **비수도권**은 44.1명(8.16.~8.22.)에서 **77.1명**(8.23.~8.29.)**까지 증가**하였다가 56.3명(8.30.~9.5.)으로 감소한 이후 계속 줄어 **지난 한 주는 23.7명**(9.13.~9.19.)이 발생하였다.

< 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8.16. ~ 8.22.	8.23. ~ 8.29.	8.30. ~ 9.5.	9.6. ~ 9.12.	9.13. ~ 9.19.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68.4명	331.0명	218.4명	134.6명	107.4명
수도권	224.3명	253.9명	162.1명	98.9명	83.7명
비수도권	44.1명	77.1명	56.3명	35.7명	23.7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2.0명	11.6명	11.6명	14.7명	12.3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성과는 모두 국민들이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감염 전파와 확산의 계기를 크게 줄여주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하고,

- "그러나 1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므로 **거리 두기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2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최근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의료공백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 사례를 공유**하고 **감염관리 지침을 작성·배포**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검사 실시, 업무배제, 진단비용 지원** 등 관리를 강화한다. **협력 업체 및 위탁업체 직원도 의료기관 종사자에 준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에 대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거리 **노숙인은 시설입소를 유도**하고 **임시 주거도 지원**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노숙인 현장 보호 활동을 통해 **급식과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종교시설의 방역강화 조치 준수여부를 점검해 오고 있다.

- 어제(9.20.)는 4,458개소의 **종교시설을 점검하였고, 이 중 12개소가 방역강화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3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현황 및 조치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로부터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공정위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방문판매업체 등과 협력하여 방역 점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지난 9월 18일(금)부터 지난 8월에 파악한 방문판매 지점·홍보관 자료를 활용하여 **방문판매 분야의 집합 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 9월 중으로 최근에 추가되었거나 기존에 누락되었던 방문판매 지점·홍보관 현황을 추가로 파악하여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 또한, 9월 23일(수)부터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제 대상을** '불법피라미드업체'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분야 집합 금지 명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도 확대**하고,

*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는 '20.6월부터 운영하여 신고된 13건 중 2건에 포상금 지급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9월 23일(수)부터 **관공서 전광판, 지역 홍보지, 반상회지**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노인층을 대상으로 방문판매업체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홍보할 계획이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4 추석방역대책 추진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추석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정부는 **국민의 전국적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 기간**이 방역 관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난 9월 6일 추석 방역대책을 마련·발표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추석 방역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먼저, 방역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기 위해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하고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를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 촉진방안도 마련하였다.

- 국민행동요령 **방송 영상과 디지털 컨텐츠를 제작·확산**(9.18.문체부·방통위)하고, 국민 참여 **'쉼' 백일장 공모**(9.16.복지부)도 진행하여 집안에서 머물면서도 서로 간의 마음을 돌보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 문화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온라인 추석 특별문화행사****도 개최하는 등 집안에서 즐기는 문화콘텐츠 무료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문화포털 '집콕 문화생활(http://www.culture.go.kr/home)' 홈페이지 등

** 가족 집콕놀이 공모전(9.24.~10.24), 온라인 한복상점(9.10~12.31), 온라인 미술주간(9.24~10.11) 및 문학주간(9.26~11.30)

- 또한, **네이버 티브이(TV), 유튜브** 등을 통해 국립기관, 민간단체 등의 **연극, 오페라, 뮤지컬, 퓨전 국악공연, 비언어극** 등도 **특별 중계·방영**한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한편,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족·친지 등에게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실 수 있도록 영상통화 등 **다자간 비대면 안부 인사 서비스를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하여 **판매비율을 50%로 제한**(9.2.국토부)하고, 버스는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는 등 밀집도를 낮추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 명절 기간(9.30~10.2)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9.16.국토부)하여 이동량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 휴게소, 졸음쉼터 등의 **휴게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9.20.국토부)하는 한편,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32개소) 운영,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의 이용을 분산할 계획이다.

*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 출입명부 작성,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하며,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및 야외 테이블 투명 가림판 설치

○ **벌초·성묘봉안시설** 방역 강화 및 분산 방문을 위한 **방역대책도 시행(9.6.복지부)하고 있다.**

- 추석 성묘객 분산을 위해 **오늘**(9.21.)**부터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제공하고,

- 봉안시설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추석연휴(9월3주~10월3주) **제례실·유가족 휴게실을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 산림조합과 농협 등에서 제공하는 **벌초 대행 서비스를 제공**(9.13. 농식품부)하여 벌초 목적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요양시설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면회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별도 공간에서 **사전예약제를 통해 제한적인 비접촉 면회**(9.6.복지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감염이 취약한 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 **음식점과 카페**(9.8.식약처)뿐 아니라 전화상담실(콜센터), 식품제조업 등 밀폐·밀집한 **감염 취약 사업장**(9.7.고용부), 물동량 증가로 위험요인이 있는 **유통물류센터**(9.10.국토부)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해 각 소관 부처에서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방문판매시설**(9.6.공정위), **노숙인 시설**(9.10.복지부), **유통매장**(9.12.산업부), **외국인 밀집시설**(9.3주~,법무부), 요양시설(9.21.복지부) 등

- 전통시장(9.20.중기부)에 대해서는 방역점검반의 활동을 강화하고, 백화점 등 유통매장에 대해서도 소독 등 방역관리와 함께 행사와 시식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 **연휴 기간에도** 방역 대응과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 연휴 기간에도 이용 가능한 **선별진료소와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여 검사와 치료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 검역은 3교대로 상시 대응하는 한편,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는 24시간 대국민 상담**을 이어가며, 방역당국의 **필수인력도 순환근무로 유지**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추석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의 안전을 위하여 **집에서 쉬며 화상 통화나 선물, 편지 등의 비대면 행사**를 통해 서로 간의 마음을 나눌 것"을 당부하였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9월 20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636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55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811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03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9.2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9월 20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PC방 429개소, ▲노래연습장 365개소** 등 30개 분야 **총 3만2081개소를 점검**하였고, **출입자 명부 작성 등 48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40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06개반, 482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붙임1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NOW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